# 社 說

## '대학의 자리매김은 대학과 대학생의 공동임무'

### ——— 학생의 날 61주년을 맞이하여

학생의 날을 맞이하면서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적 상황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의 지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오늘의 대학생의 참모습을 찾아보는 것이다.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대학생의 참모습은 그들이 조성해 놓은 지적 상황에 가장 잘 나타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흑백논리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생의 지적 자세를 저항주의적 지성과 순응주의적 지성으로 양분할 수 있다는 진단은 정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진출을 위한 통과의례(通過儀禮)정도로 대학생활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에게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순응주의이다. 이 종류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진리나 학문은 별로 안중에 없다.

대학진학은 사회진출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입사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대학의 입사학원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사회체제에 순응해서 온순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희망하고, 어떤 모순이 노출되든 간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그들이 차지할 대기업의 자리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소리높이 보수의 논리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순응주의적 자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고 그 모순의 극복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서슴치 않는 대학생들에게 현저한 것이 저항주의적 지성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사회를 가장 올바른 역사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있다.

그들중에는 교조주의자도 있고 소영웅주의자도 있으며 맹신자도 있다. 그래서 유연해야 할 대학생의 지성을 경직시키는 폐단도 때로는 발견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대학은 투쟁의 장이며 투쟁을 위한 배경에 지나지 않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기성체제의 이데올로기의 허황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순응주의자나 저항주의자나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묘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에서 이 극단적인 묘사의 표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지적 상황을 이와 같이 진단하는 경우, 대학생이 몸담고 있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은 설 자리를 잃는다.

순응주의자도, 저항주의자도 대학이 지성의 전당이요 본산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입사를 위한 학원으로서의 대학도, 투쟁의 배경이요, 투쟁의 장으로서의 대학도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대학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대학의 지성은 저항주의적 지성과 순응주의적 지성이 지배하는 대학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이 대학에 있는가. 모든 대학생에게 있는가. 하는 추궁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방황하는 대학의 지성으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아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의하고 싶을 뿐이다. 그것은 대학과 대학생이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학의 긴급한 과제인 것이다.

## '국민이익 배제한 집권층의 자기 이익 확보'

### — 민자당의 내각제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

3당합당을 기점으로 충분히 예상되던 내각제로의 개헌의도가 이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주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여권 수뇌부는 내년 초부터 야당과 개헌협상을 본격적으로 벌이되 야당이 반대할 경우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담화등의 형식을 빌려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에 개헌추진 작업을 매듭짓겠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여당은 지방자치제의 핵심이 되는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야당의 국회등원에 쐐기를 박고 있다.

우리는 먼저 남북통일문제와각종 사회, 경제문제가 중첩된 현실을 도외시하는 정치권의 무능력을 개탄하면서 동시에 민자당의 자의적 개헌 의도에 분노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진공상태속에서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니며 당대 국가의 정치문화속에서 따져야 할 문제이다. 우리 현대정치사는 가히 헌법 뜯어고치기의 연속이었으며, 그 요체는 권력구조의 변동을 위한 것이었다.

싸잡아서 말하자면 헌법고치기와 통치자의 편의주의 및 장기집권욕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최근의 개헌논의를 이러한 역사적 맥락으로 부터 추단컨데, 아무리 돌려 생각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개헌해야 할 필연성을 감지할 수가 없다. 가령 유신때의 논리대로라면 이토록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차라리 강력한 대통령제를 주장할 만한데 사회·경제적 위기현상들을 민주화의 부산물로 매도하면서도 내각제로의 변화를 꾀하는 여당의 논법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기필코 정치권력 내부의 자기이익 확보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혐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백보를 양보하여 정치란 것이 정치가의 자기이익을 공동선과 합치시키는 노력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지금 민자당이 의도하는 개헌이란 자기이익을 기초로 두고 국민을 끌어들이려는 전도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이점은 그들 역시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가령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든지, '개헌여론을 최대한 확산시킨다'는 표현의 의도성에서도 능히 감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차후 내각제 개헌을 대통령제와 내각제라는 두 개념을 교과서적으로 나열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가 비교적 쉬운 내각제가 민주화 시대에 더욱 적당하다는 논리를 통해 관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각제의 교과서적 장점뒤에 감추어진 집권층의 자기이익 확보이다. 내각제를 통해 그들의 집단이익을 확보하고 그것이 국민의 공동이익을 배제할 경우 그것을 오도된 대통령제 하의 손실보다 더욱 큰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귀족정이나 과두정의 형태를 왜 군주정의 타락한 정치형태로 꼽았는지의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 볼 때다.

# 통일 구호에 감춰진 정권유지 전략

## ——— 6공화국 통일정책 진단한다

### I. 들어가며

남북한 총리회담에서의 유엔단독가입 보류라고 한 것이 지난달인데 다시 유엔가입신청이란 소식을 접하고서는 종잡을 수 없는 담당자들의 행위에 의혹만 커질 뿐이다.

분단이래 남북한은 서로의 방식을 주장하면서 반목·대립을 지속시켜왔다. 한때는 피빛의 하늘을 보기도 했고, 피차의 우월성 확보경쟁을 지속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자체에는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나타나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의 분출로 이제까지의 극복의 대상이었던 북한이 통일에의 한 주체로 인식되었고, 밖으로는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개방으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남한의 6공화국 정부는 정권적 차원에서 남북한간의 협상의 가시화란 테마로 남북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창구단일화와 자주적 민간교류화는 형식상 갈등으로 시작된 정부의 통일정책은 7·7선언의 민족공동체에서, 1989년 가을 국회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출된 일련의 과정과 이것과 함께 각종 남북대화를 위한 통로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남북한 인적, 물적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자체에 그들의 정권차원의 손익계산이 충분히 고려된 바가 있기에 현하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통치구도에서의 통일의 위상

한반도라는 특수성이 지워준 우리의 국가목표는 크게 대내적으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대외적으로 자주, 안보, 통일로 대변할 수가 있다. 지난날의 남한의 정권사를 살펴보면 정권에 따라 이 국가목표의 우선순위가 달랐다. 그것은 이 모든 목표를 정권이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그 성격상의 양립불가결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안보제일주의는 정권자체가 가졌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한 대내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확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것은 결국 대외목표는 국가의 대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공화국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1/3의 지지기반으로 출발한 정권은 초기의 3저현상에 기인했던 경제의 호전은 정치발전의 문제성을 어느정도 감출 수 있었으나 이후의 가속화된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모색한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목표였다. 이는 1989년의 공안정국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정부의 통일문제에서의 독식현상과 현재의 열기를 확산시켜 가고 있는 현상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권적 차원의 통일정책은 첫 단계가 '교차승인'과 이로인한 2개의 국가인정에 따른 분단의 안정화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의 근본원인은 분단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존재에 의한 것이며, 이들이 추구할 수 있는 통일정책은 북한의 통일제의를 압도하면서 교차승인이나 그밖의 방법으로 분단을 기정사실화해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70년대초 교차승인의 개념이 제시된 후 1988년 이후의 활발한 통일논의 과정에서 유엔동시가입이나 시차제가입 혹은 단독가입 그리고 주변강대국과의 교차접촉, 교차교류, 북방정책 등은 분단안정화를 지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현정권의 통일정책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북방정책은 그 자체가 정권의 유지 및 재생산에 그 근본목표가 있다. 즉, 6공화국을 담당하고 있는 정권으로서는 1/3의 지지기반의 이해관계에 부응하고 나아가서는 그 지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그들의 통치구도의 과제였다. 즉, 경제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시장에서 개척의 의미가 갖는 정치적 기반의 확충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란 측면에서 북방정책이 그 대상으로 한 사회주의권은 매혹적인 지역이다.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은 또다른 지지기반을 위한 존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하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형제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관계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교차승인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었다. 교차승인의 본질이 소련과 중국의 남한승인이라는 사실과 북방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임을 고려해볼 때 이는 명백사실인 것이다.

정권의 통치구도의 핵심인 북방정책은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추세에 편승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고 이것은 남북관계에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의 통치구조의 핵심이라고 북방정책을 여기는 것은 북방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며, 곧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갖는 정치적 성과는 역대 정권의 정치적 성과와 비교하여 엄청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치의 실패를 남북정상회담이 상쇄해 주리라는 기본적 구도에서 북방정책은 통치구도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III. 남북교섭과 유엔 가입 신청문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북방정책은 남북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현재 남북총리회담을 진행시키는 가시화를 가져왔다. 1차 남북 총리회담의 결과 '한국 단독 유엔가입 보류'와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회담 재개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이 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회담자체가 갖는 의미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본질에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것은 분단을 유지 재생산하는 근본원인으로서의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가 남북관계의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다.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지역통합론에 근거한 점진적 기능주의든 아니면, 근본문제의 타결을 지향하는 정치·군사 우선주의든간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문제를 우려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88년 이후 남한이 군사문제의 해결을 남북대화의 과제로 해석하고 최근의 군축문제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이라는 정권적 차원의 목표와 연결되어 상호간의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8년 이후의 북경에서의 미-북한 비밀회담과 미국은 북한의 대미교섭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대일본 관계는 최근 북한-일본의 일련의 회담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간의 교섭의 과정에서 최근 최호중 외무장관의 '유엔가입신청' 발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남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2개의 국가인정의 기반에서 지난 총리회담에서의 단독가입보류는 2개의 국가인정의 방안을 포기한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부정이라고 할 때 유엔가입신청의 의도는 단순히 협상의 포기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유엔가입신청의 이유가 유엔단일의석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진행 과정에서의 무성의이다.

이러한 발표가 주는 파장은 어떠한 것일까? 남한의 유엔가입신청은 회담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해답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맥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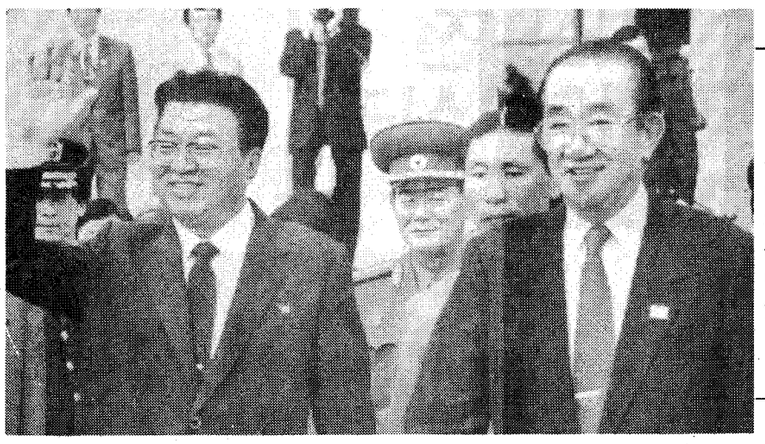
즉 케네쓰 볼딩이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미지이다라는 측면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북한의 주변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북한내치수단으로 등장한 통일열기와 맞물려서 작용하리란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IV. 나오며

결국 최근의 총리회담은 기존의 통일 정책의 변화가능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대외관계에서 수세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이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북방정책의 최종점인 남북정상회담의 전단계이다.

따라서 총리회담에서 합의사항의 불이행 움직임은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 수단으로 파악되어진다.

최 영 석
〈본교·정치학석사〉



12차 남북고위급 회담은 쌍방의 입장만 확인한채 끝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 內治실패 도피처로 이용된 고위급 회담

### 민중차원의 논의·교류 확보위한 노력 필요

'최후의 모래쌓기'


# 1991학년도 전기 경희대학교 각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

## 대 학 원

전화 (직) 967-6937 (교) 961-0123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반아어학과 *사학과 *법률학과 *행정학과 *정치학과 *신문방송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철학과 회계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상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임상약학과 간호학과 유전과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계산공학과 *섬유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산업공학과 *농학과 *임학과 *식품가공학과 *조경학과 원예학과 *환경보호학과 미술학과 음악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요업공예학과
*표는 박사과정 설치학과

2. 원서교부: 1990.11.5(월) - 1990.11.9(금)
3. 원서접수: 1990.11.5(월) - 1990.11.9(금)
4. 시험일시및 장소: 1990.11.24(토) 10:00(본 대학원)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나. 박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제2외국어 (영문, 지리, 사학, 한의학과에 한함)
TOEFL 시험성적 550점 이상 취득자는 영어시험 면제 (석사·박사과정, 최근 2년 이내 성적)

## 경영대학원

(남·녀야간)
전화 962-9688 (02) 961-0126~8 (02)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 연구및 경영자 과정
·경영학과: 인사관리, 마아케팅, 생산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각 전공
·세무관리학과: 세무관리, 세무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각 전공
·노사인력 관리학과: 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 인간관계 노사관계, 노동경제, 노동정책 각 전공
·관광경영학과: 관광자원개발, 호텔경영, 호텔회계, 사업경영, 관광홍보 각 전공
·산업안전관리학과: 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각 전공·무역경영학과 무영경영, 무역정책, 국제경제 각 전공

2. 원서교부및 접수: 1990.11.21(수)~1990.11.27(화) 16:00
3. 시험일시및 장소: 1990.12.1(토) 14: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영어, 경력, 면접)
나. 연구및경영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전:
(1) 각종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50%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2) 수석합격자와 재학중 각 학과 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료의 30%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 교육대학원

일반제·계절제
전화 직)964-6674, 961-0134~6

1. 모집과정 및 전공
1) 교육학석사과정
가. 일반제모집전공
교육행정, 국민윤리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공업교육, 전자계산교육, 요업공예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나. 계절제 모집전공
교육행정,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공업교육, 전자계산교육, 농업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2)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2. 원서교부및 접수: 1990.11.21(수)~1990.11.27(화) 16:00
3. 시험일시및 장소: 1990.12.1(토) 10: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전공,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전:
(1) 현직교직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현직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2) 본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단, 동일한 전공분야이어야 함)
(3) 교육학석사과정 이수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 대학교의 해외자매교에 유학 추천을 받을 수 있음.
(4)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는 자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중등학교 1급 또는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단,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 상이한 전공 이수자는 제외됨.

## 행정대학원

(야간)
전화 962-1213 961-0131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연구과정
1)행정학과: 정책학, 행정관리, 안보정책, 간호행정, 병원행정
2)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환경행정, 토지및 주택정책
3)사법행정학과: 사법행정
4) 사회복지 및 보험행정학과: 사회복지, 보험행정
나. 행정관리자 과정
다. 지방의회지도자과정

2. 원서교부및 접수: 1990.11.21(수)~1990.11.27(화)
3. 시험일시및 장소: 1990.12.1(토) 14: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필기시험 (행정일반이론 및 각 전공 기초분야), 면접
나. 연구과정, 행정관리자과정 및 지방의회지도자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5. 현역군인, 국가공무원, 각종 고시 1차합격자, 간호사, 본대학교 동문은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

## 평화복지대학원

전화 233-2992, 234-0220
(0346) 65-7621~8

1.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2년6개월, 약간명)
평화·안보학과, 동북아학과, 정책학과, 국제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2. 입학자격
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전형방법: (1) 영어시험 및 논문(국문), (2) 1차면접: (1)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2차면접 및 체력검사: (2)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장학제도: (1) 재학중 학비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2) 기숙사(三正書軒) 숙식에 필요한 숙식 장학금을 지급함.
5. 주지사항: (1) 본 대학원은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 함, (2) 강의는 영어로 함, (3) 교수진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 (4) 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석사학위를 수여함, (5) 전인적 인격도야를 위하여 입학후 4학기간 삼정서헌에서 생활하여야 함, (6) 본 대학원은 최적의 교육환경과 현대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6. 원서교부, 접수:
(1) 기간: 1990.11.19~12.1
(2) 장소: 본 대학원 (경기도 광릉)
7. 전형기간 및 장소:
(1) 시험기간 : 1990.12.7~12.12
(2) 장소 : 본 대학원

## 산업정보대학원

(야간)
전화 (02) 741-5701, 745-5702
(0331) 280-2130, 2131

1. 모집학과 및 인원 (약간명)
·석사과정: 기계공, 전자공, 식품가공, 전자계산, 지역개발행정, 경영정보, 정보통신, 계측제어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0.11.19(월)~11.26(월) 17시까지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0.12.1(토) 14시. 본대학원
4. 시험과목: 논문(상식), 전공, 면접.
5. 특전:
동문 및 직업군인, 공무원은 전이수기간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6. 본대학원 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번지

## 신문방송대학원

(야간)
전화 961-0560, 0561, 967-7083

1. 모집학과 및 인원: 석사과정 00명, 언론연구과정 약간명
2. 모집학과
1) 신문방송학과
가. 신문전공
나. 방송전공
다. 출판잡지전공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0년 11월15일 (목) ~1 990년 11월 28일(수)
4.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본 대학원 (체육대학관 5층)
5. 시험일시 및 장소
1990년 12월1일(토) 오후2시
본 대학원 (체육대학관 내)
6. 시험과목
(1) 석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및경력
(2) 언론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경력
7. 특전: 본교동문은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8. 언론연구과정
(1) 고졸이상자, (2)수업기간 1년
9.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언론계에 진출할 희망자는 언론연구과정에 응시 가능함.